

외부인 출입막고 365일 집중 수행... '일심불란' 강조



동화산 삼성동에서 내려다 본 동화선사 전경과 삼성동 인근 바위에 새겨져 있는 육조 혜능 선사의 발자국(오른쪽).



기 드문 수행전문도량인 것이다.

비구니 창지 스님, 3년 무문관 회향 설법
10월 25일 저녁 8시, 저녁 예불에 이어 두 시간의 참선이 끝나고 특별 법문시간이 마련됐다. 이날은 사자봉 아래 동굴 무문관에서 3년간의 폐관 정진을 마치고 나온 비구니 창지(昌智) 스님이 수행담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대웅전에서 200여 수행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57세의 창지 스님은 간접하면서도 빠른 말투로 1시간 이상 체험담을 말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역자와 다수의 대중도 알아먹기 힘든 광동 사투리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창지 스님의 용맹정진을 격려하는 한편, "수행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무슨 정진을 하든 일심불란(一心不亂)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루 뒤, "창지 스님의 수행 경지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만행 스님은 "아직 문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짧막하게 평했다.
7년동안 세 번의 무문관 결제를 마치고 10년 동안 불사를 하고 있는 만행 스님은 동화선사를 완전한 수행도량으로 만들어놓았고, 365일 집중수행을 하고 있었다. 육조 스님과 만행 스님이 정진한 삼성암 이외에 길고 짧은 동굴이 많아서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만행 스님은 1000여명이 동시에

좌선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선원인 자재당을 건립,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수행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10년만에 신도 30만의 수행전문도량 일궈
동화선사에서 100km 이남에 위치한 남화사에는 육조 스님의 등신불이 모셔져 있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육조 스님이 14년간 보임공부한 동화선사는 중국에서도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2만㎡에 달하는 전각들을 건립해 육조 스님의 수행도량을 증후시킨 만행 스님의 폐관 수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동화선사는 현재 30여 만명의 신도를 가진 거찰이 됐다.



대웅전에서 좌선중인 동화선사의 200여 사부대중.

특히, 스님의 구도기와 법문을 담은 <마음의 달(心中月)>과 <항복기심(降伏其心)>이 100만 부 이상 보급되면서 중국 전역은 물론 홍콩, 대만 등 외국에서도 수행자들도 장기간 머물며 정진하는 전문수행처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어로 번역된 <마음의 달>(대유학당)에 추천사를 쓴 한국불교중앙선원 총재 환안 스님은 "만행 스님은 세 차례에 걸쳐 폐침광전(廢寢忘餐: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잊음), <능엄경> 50번마사(彌摩事: 사탄 수행경계를 판단함)와 <원각경> 25원통(圓通)을 체현,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사회를 구제하는 진정한 선지식이 되었다"고 평한 바 있다. 환안 스님은 또 "만행 스님은 역경 속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 수행과정의 잘못된 길을 밝히고 건강한 몸으로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고 있으니, 21세기 지구상에서는 보기 드문 수행자"라며 수행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 광둥 =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만행 스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은 동굴속에서 수련할 수 있지만, 심법(心法)의 원만함은 반드시 인간세상에서 수련해야 합니다. 도(道)를 사용하는 것도 인간 세상에 있으니, 돌파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7년에 걸쳐 3번의 폐관(閉關: 무문관) 정진을 무사히 회향한 동화선사 방장 만행 스님은 "하루 18시간씩 가부좌를 하고 좌선하며 잠을 자지 않는다고 성불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신체로만 닦는 도는 영원하지 못하며 모두 생멸하게 된다"며 "오직 세속에서 수련을 거쳐 심리상태가 비워질 때에야 그 불생불멸(不生

“ 심법의 원만함은 반드시 세속에서 수련해야 ”

不滅) 무형무상(無形無相)한 것(佛性)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즉, "중국의 불과(佛果)를 얻자면 오로지 인간세상에서 보살도를 행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

만행 스님은 무문관 수행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상하게 설명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산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기를 조절(鍊心調氣)' 했지만, 결국은 비판하거나 실망하고 질병에 걸려 고생이 막심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고 수행하면 어떻게 기(氣)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산속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면 당분간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일단 세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소용 없게 됩니다. 수련을 하는 목적은 도를 남에게 보이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자기의 지혜를 세속에 필요하게 쓰자는 게 목적이입니다."

만행 스님은 "세속이야말로 심리 상태와 능력을 검증하고 인품을 검증하는 유일무이하고 효과적인 장소"라며 "수도자가 가장 먼저 닦아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가짐, 지혜, 자비심, 인품과 인격"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스님은 "이와 같은 수련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바로 세속이요 사람들의 무리"라며 "산림 속에서 수련한

다고 해서 선자(禪者)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행 스님은 혹독한 무문관 수행을 이겨냈지만, 극단적인 고행을 권하지 않고 오히려 단박 깨침의 기원과 늘 깨어있으면서 비취보는 '각조(覺照)'가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인데 또 무슨 부처님이 된다고 합니까? 도(道)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놓고 고요히 안정한 뒤에 관(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하기만 하면 됩니다."

1971년생으로 18세에 중국 허문시 남보타사에서 삭발 출가한 만행 스님은 22세에 중국 민남 불교대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7년간 세 번에 걸쳐 폐관 정진에 돌입했다. 1998년 동화선사(www.donghuasi.org) 방장에 취임한 스님은 2003년부터 동화선사 중흥불사에 나서 2008년 10월, 10만 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한 낙성식을 봉행했다.

스님은 50여 스님, 중무인들과 함께 불사현장에서 일하는 한편, 틈틈이 제자들과 신도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설법하면서 중국에서 보기 드문 수행전문도량을 일구고 있다.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괘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은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洞土)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子女)액운 차귀(差귀)탈 정단법
- * 취직(就職)시험·승진(昇進)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選擧)후보(候補)당선(當選)비율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官廳)·공무원(公務員)빈자리(빈자리)입관(入官)가능여부
- * 소송(訴訟)·관제사(官制事)의 승패(勝敗)판단법
- * 보고(報告)싶은 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消息)가능일
- * 가출(加出)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分失物) 위치(位置)추정법
- * 도주(逃走)·도망(逃)간(間)사람이 어느(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祖先)원(元)귀(鬼)법
- * 12신궁에 암장(暗藏)된 악령(惡靈)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前生)투(投)시(時)법
- * 前生(前生)의 夫婦(夫婦)인연(人緣) 원(元)집(集)이 現生(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병의(病)착(着)신(身)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換)생(生) 귀(鬼)신(神)작(作)해(解)론
- * 산소(山所)·무덤(墓)에 관(觀)해서 [음택(陰宅)법]
- * 무덤(墓)안 유골(遺骨)의 현재(現)상태(態)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